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임성훈·강인규 2강구도 속 김대동 사퇴 변수

나주시장

나주시장 선거전은 강인규 후보, 현 나주시장인 무소속 임성훈 후보, 무소속 나창주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나주시장 후보

Table with 3 columns: Candidate Name, Party, and Key Points. Candidates: 강인규(59), 나창주(80), 임성훈(54).

새정치 후보 대세론 vs 현시장 인물론 맞서

최고령 나창주 후보 인지도 바탕 바닥 다져

에서의 과잉 경쟁으로 민심이 분열되면서 나주의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보들의 단일화와 도의원 후보들의 대연대를 만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잘못된 공천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4자구도 1선거구 이민준 우세 ... 2선거구는 3파전 혼전 양상

도의원

나주시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두 곳이다. 1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민준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원숙 후보, 무소속 최삼례 후보, 무소속 김재역 후보의 4자 구도다.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2선거구에서는 뜨거운 혈전이 펼쳐지고 있다.

회 의원 출신으로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다. 전남지역 도의원 선거구 중 가장 치열한 혈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들썩들썩' 목사고을 토요 문화장터

24일 삼도동 시장광장서

팔도장터 관광열차도 운영

나주 목사고을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조진상)은 24일 오후 3~6시 삼도동 시장광장에서 '들썩들썩' 토요 문화장터(사진)를 연다.

된 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는 것으로, 셀프 야외 바베큐 파티를 비롯해 작은 음악 콘서트, 영화상영, 문화전시행사로 꾸며진다.

공무원·시민 나주 발전 정책개발 머리 맞대

시장연구모임 '뜻세움' 워크숍

나주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혁신도시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력 회복 등 실효성 있는 지역 정책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여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초 연구과제를 공모한 후 9월 말까지 연구활동을 최종 평가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for 'Yehyang High-Speed Tour' featuring buses and scenic views. Text includes '여행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and contact information for Yehyang Tour.

Advertisement for 'Hite Beer' featuring a glass of beer and text '나왔다!'. Includes contact info for Hite Beer and '해감 노가리 호프'.